

六爻의 의학적 응용

편성법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Medical Application of Divination of Six Yinyang-strokes

Sung Bum Pyoun,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In ancient times, the society was unity of church and state and this social leader took medical treatment, too. As he ruled over a people with a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 many oriental doctors have considered that the medicine and a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周易) have same origine, and have used it. The divination of six yinyang-strokes(六爻) must be made up of some established rules, for example, division of fifty sticks(揲蓍法), use of three coins(擲錢法), use of numbering sticks and number of time(時間作卦法). six yinyang-strokes is one trigram. As we divine good or bad luck through investigation of six yinyang-strokes, we can know good or bad luck of patient's diseases and cares. A purpose of divination is called use-spirit(用神), a spirit to weaken use-spirit is called dislike-spirit(忌神), and a spirit to help use-spirit is called pleasure-spirit(喜神). As use-spirit is a state of disease in divination of disease and patient, use-spirit is patient and dislike-spirit is disease. If supports of use-spirit are more than supports of dislike, it's good luck, but if not, it's bad luck. As use-spirit is a prognosis of disease in divination of care, use-spirit is patient, dislike-spirit is a state of disease, and pleasure-spirit are medicine and doctor. we inspect condition of patient with good or bad luck of use-spirit, state of disease with good or bad luck of dislike-spirit, and medicine with good or bad luck of pleasure-spirit. Finally, we take a bird's-eye-view of the balance of them and decide on course of action.

Key words : six yinyan-strokes(六爻), Chinese classic on divination(周易), trigram(卦)

서론

『帝王世紀』에서 “伏羲氏 …… 劃八卦 …… 乃嘗味百藥而制九針 以拯夭枉焉¹⁾”라 하였고, “복희씨는 六氣·六腑·五行·五臟·陰陽四時·水火升降을 象으로 나타내었고, 만병의 이치를 분류하였다²⁾.”라 하여 상고시대에는 의학은 巫로부터 나왔고 의학은 宗教·巫術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인류의 초기 사회생활은 祭政一致의 사회로 제사장이자 지도자였던 이들이 醫까지 같이 하였다. 이들은 그 당시의 엘리트집단으로 易이라는 자연법칙을 바탕으로 사회집단의 기미와 징조를 보아 정치를 하고, 자연의 기미와 징조를 보아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쳤으며, 인체의 기미와 징조를 보아 의술을 하였으니, 세가지가 대상이 다를 뿐 그 바탕이 되는 易은 한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診斷에서의

診자는 볼, 증거, 점칠(점에 의하여 길흉을 판단함) 診의 뜻이 있다.

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자(기원전 12세기 경) 중에는 점을 쳐서 질병을 고치려는 것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甲辰卜出 貞 王疾首 亡征”, “武丁疾身 御祭妣己及妣庚”, “武丁病齒 祭于父乙 以求賜愈” 및 “武丁疾舌 祈于亡母庚”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巫師가 환자의 先祖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병이 낫기를 祈求한 것이다. 심지어 西周의 初期에는 周武王이 患病에 壇을 세워서 三王(三代先祖)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尚書·金縢篇』에 있다³⁾.

唐代的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太醫習業第一』에서 “대저 훌륭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內經』과 『仲景全書』에 숙달하는 것 외에도 陰陽祿命·諸家相法 및 灼龜五兆·周易六壬의 오묘한 이치를 이해함과 아울러 정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비로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 劉完素는 『素問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4/07/26 · 수정 : 2004/08/27 · 채택 : 2004/12/03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中國醫學史, 1997, p. 3.
2) 곽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 51.
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中國醫學史, 1997, p. 37.
4) 곽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 93.

玄機原病式·序』에서 “易의 가르침은 五行八卦로 나타나고, 儒學의 가르침은 三綱五倫에 바탕을 두며, 醫學의 가르침은 五運六氣에 요체가 있다. 그 분야는 세 가지이지만 그 道는 하나이므로 운용함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본래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⁵⁾ 張景岳이 醫易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易이 책으로 된 것은 길흉을 알아내어 사업을 성취하도록 하고 다가올 일을 알고 지나간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醫學이 道가 됨은 근본을 조화롭게 하고 生化를 도와 기사회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비록 음양이 이미 『內經』에 갖추어져 있지만 변화는 周易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가 하나라고 하였는데, 하나란 여기서의 陰陽이다. 醫와 易의 근원이 같다고 함은 이들의 변화가 같다는 것이다. 어찌 醫와 易이 서로 통하고 그 이치가 둘이 아닌데, 의학을 하면서 易을 몰라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⁶⁾. 羅以迪은 『八卦占卜·解放程』이라는 논문에서 자연과 사람이 상응하는 한 卦象이 되도록 관념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 卦象의 卦爻辭가 바로 觀念圈이 소속된 64卦 중의 한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사물의 비밀번호가 이를 푸는 방법이 나타난다⁷⁾고 하였다⁸⁾. 易學의 예측과 한의학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예를 들면 辨證論治 중에서 病情과 病勢의 발전과 전회, 예후의 판단·五運六氣로 생태를 예측하는 등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모두 象數易에서 비롯되었다. 이 밖에도 易學으로 “생명의 비밀번호”를 풀어 한의학 임상과 결합시키는 것은 易學을 응용하는데 있어서 큰 과제이므로 중시해야 한다⁹⁾.

한의학의 陰陽五行, 藏象學, 氣化學說, 運氣學說, 病機學說 등은 모두 周易에서 양태되었다. 그 중요한 것만 보아도, 周易의 양·음·효간의 음양관계의 음양의 원리는 한의학의 음양학설의 기원이 되고, 無極·太極圖는 精氣·陰陽學說의 근본이 되며, 爻象·卦象은 藏象學說의 근원이 되고, 六爻는 한의학에서 六經·육경 체계·六經辨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등이다¹⁰⁾. 한방 진단학의 중요한 특색은 望·聞·問·切의 四診을 결합하여 환자의 體象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는 환자의 안색·체형·舌象·脈象에 근거하여 病因病機를 판단하여 진단을 내리고 치료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방 진단학이 易學의 象數를 운용하기 때문이다¹¹⁾.

이렇듯 醫는 易을 제외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周易占의 六爻를 통해서 병의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본 론

1. 육효의 역사

육효점은 주역의 64괘와 각 괘의 여섯 효를 바탕으로 하나

주역점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치는 점이다. 주역의 64괘를 木火土金水 오행으로 나누고 각 효를 육십갑자에 맞추며, 점치는 달과 날의 육십갑자와 점치는 사람과 점치는 일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한 다음 오행의 相生·相克의 이치에 따라 길흉변화를 판단하는 것이다¹²⁾.

2. 卦

1) 八卦

太極이 兩儀가 되고(一變), 兩儀가 四象이 되고(二變), 四象이 八卦를 이룸으로써(三變) 변화의 기본과정이 이루어진다. 그 분화하는 방법은 二分法이나 三變으로 완성하여 三才를 이루니, 易은 陰陽과 三才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것이다¹³⁾. 이 陰陽의 三才에 의한 2×2×2의 작용으로 八卦가 생기니 乾·兌·離·震·巽·坎·艮·坤이다. 卦는 象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괘에 응하는 것은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보편적으로 卦象에 응하는 의학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다¹⁴⁾.

(1) 乾

① 身體 : 머리, 정수리, 얼굴, 뺨, 광대뼈와 볼, 뼈, 肺에 해당.

② 時 : 가을(음력 9~10월), 戊亥 및 끝수가 1·4·9인 年月日時 또는 金曜日.

③ 疾病 : 얼굴, 肺, 근육이나 뼈, 上焦, 手太陽脈이 빠르게 된다. 하늘에서 위엄으로 벌주는 것으로 胃가 막혀서 눈에서 熱이 난다. 惡寒과 熱이 난다. 여름점 → 좋지 않다.

(2) 兌

① 身體 : 동물의 혀, 입, 폐, 불구자, 침이나 몸에서 나오는 점액, 양, 膀胱, 大腸, 뺨과 볼.

② 時 : 가을(특히 음 8월), 酉丑 및 끝수가 2·4·9인 年月日時 또는 金曜日.

③ 疾病 : 입·혀·咽喉·치아에 疾病이 있고, 氣가 잘못 돌아 喘息이 된다. 찬 음식 주의.

(3) 離

① 身體 : 눈, 심장, 上焦, 小腸.

② 時 : 여름(특히 음력 5월), 午 年月日時 및 끝수가 3·2·7인 날 또는 火曜日.

③ 질병 : 手足이 心臟의 克을 받음, 눈, 심장병, 기운의 조급하고 熱이 남으로 인한 병, 上焦에 있다. 熱病, 發狂, 여름점이면 더위 먹음, 계절병이다. 정신이 이상해짐.

(4) 震卦

① 身體 : 발, 肝, 터럭, 발성기관.

② 時 : 봄(특히 음력 2월), 卯 年月日時 및 끝수가 4·3·8인 날, 또는 木曜日.

③ 질병 : 발, 肝經이 잘못됐다. 놀람증이다. 氣가 積滯되어 胃를 차게해서 傷하게 함. 四肢가 倦怠롭고 疲困함.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함. 음식으로 인한 病. 藥을 남용함. 足太陽에 생긴 病. 脈搏이 가벼우면서도 세게 땀.

5)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 45.

6)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p. 46-47.

7) 易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8)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p. 91-92.

9)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p. 92-93.

10) 楊力 著 / 김충렬 外 譯,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 71 71.

11)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 315.

12)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곡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3.

13) 김석진, 大山周易講解(上經), 서울, 대우학당, 1993, p. 29.

14) 김수길·윤상철, 편해 매화역수, 서울, 대우학당, 1997, pp. 320 349.

(5) 巽

① 身體 : 넓적다리, 귀, 눈, 臍, 털, 수명, 입, 사지.

② 때 : 봄과 여름의 사이(음3·4월), 辰巳 年月日時 또는 끝수가 3·5·8인 날이나 月, 木曜日.

③ 질병 : 넓적다리, 中風 등 風으로 인한 疾病. 氣脈不順. 惡寒. 胃腸病. 물갈이 病. 手足이 30일간 차가와짐. 脈이 濡弱함. 음식이 胃를 傷하게 하여 술에 滯하여 명치밑이 더부룩함. 나쁜 냄새가 남. 물과 곡식이 맞지 않아 벼속의 腸이 제기능을 못함.

(6) 坎

① 身體 : 귀, 피, 지방질, 신장, 털, 가슴아랫부분.

② 때 : 겨울(음11월), 子 年月日時 및 끝수가 1이나 6인 날 또는 水曜日.

③ 질병 : 귀, 心臟, 腎臟, 胃가 차가워져 泄瀉한다. 감기, 결핵으로 인한 癩疾病. 足太陰의 氣에 異常이 생김. 脈이 경화되어 거칠게 땀.

(7) 艮

① 身體 : 손이나 손가락, 뼈, 코, 등, 筋肉, 脾臟, 胃腸.

② 때 : 겨울과 봄사이(음12·1월), 丑 年月日時. 끝수가 7·5·10인 날과 달, 土曜日.

③ 질병 : 손이나 손가락, 또는 오랫동안 묵혀둔 脾臟이나 胃腸病이다. 手太陰經이 좋지 않다. 脈이 가라앉고 잠김.

(8) 坤

① 身體 : 배, 脾臟, 胃, 살.

② 때 : 辰戌丑未月(특히 음6·7월), 未申 年月日時. 끝수가 8·5·10인 月과 日, 土曜日.

③ 질병 : 배(특히 脾胃), 消化不良이다. 穀食이 몸에 맞지 않는다. 手太陰經에 病이 있다. 腹痛. 脾胃의 脈이 막혀서 기운이 가라앉음.

3. 64卦

64卦는 小成卦인 八卦가 서로 거듭하여 이루어진다. 즉 小成卦가 둘 씩 짝을 지어 위·아래로 이루어지니, 조합수가 64가 된다. 대성괘를 이룰 때 소성괘를 중첩하는 것(一貞八悔¹⁵⁾)은, 소성괘로부터 성질과 구체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독립된 형태를 중시한 것이다. 소성괘를 중첩해서 대성괘를 이루므로, 비록 대성괘가 되어 한 괘가 되었지만 소성괘 본래의 성질은 남아 있게 된다. 應관계를 예로 들면, 天은 天位끼리(三爻와 上爻), 人은 人位끼리(二爻와 五爻), 地는 地位끼리(初爻와 四爻) 응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中 역시 소성괘를 중심으로 본다. 대성괘에서 위에 있는 괘를 上卦(外卦)라 하고, 밑에 있는 괘를 下卦(內卦)라 한다. 上卦는 오후·후천·외적·쇠퇴·해체·成·用·客·彼를 나타내고, 下卦는 오전·선천·내적·도래·창조·生·體·主·我를 나타낸다¹⁶⁾. 소성괘인 팔괘가 오행으로 나뉘어지듯 대성괘인 64괘도 五行으로 구분된다. 64괘가 소속되는 五行을 '屬宮'이라고 한다. 따라서 屬宮에는 木火土金水의 다섯가지가 있다. 64괘가 소속된 오

행은 육친관계를 정할 때 나(자신·我)가 된다¹⁷⁾. 京房은 單卦 자체를 중복시킨 8개의 重卦, 즉 乾金·兌金·離火·震木·巽木·坎水·艮土·坤土를 八宮에 배열하였다. 이 8개의 卦를 바로 '八純卦' 혹은 '八宮本位卦'라고 한다. 각각 하나의 純卦에서 발전시켜 7개의 卦로 만들고, 연이어 本位卦와 八卦를 합쳐 一宮이 되도록 하였다. 本位卦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初爻에서 시작하여 爻의 성질을 바꾼다. 즉 陽爻를 陰爻로 변화시키고 陰爻를 陽爻로 변화시킨다. 上世卦의 初爻를 변화시켜 一世卦를 얻고, 一世卦의 二爻를 변화시켜 二世卦를 얻으며, 二世卦의 三爻를 변화시켜 三世卦를 얻고, 三世卦의 四爻를 변화시켜 四世卦를 얻으며, 四世卦의 五爻를 변화시켜 五世卦를 얻고, 五世卦의 四爻를 변화시켜 六世卦를 얻는데 이를 遊魂卦라 하며, 遊魂卦의 內卦를 변화시켜 七世卦를 얻는데 이를 歸魂卦라 한다. 한 宮의 卦들은 그 宮의 本位卦의 五行에 속한다. 64괘의 五行屬宮은 다음과 같다¹⁸⁾.

Table 1. 六十四卦 五行屬宮表

初世 (八純)	陽金宮	陰金宮	火宮	陽木宮	陰木宮	水宮	陽土宮	陰土宮
重天乾	重澤兌	重火離	重雷震	重風巽	重水坎	重山艮	重地坤	
一世	天風姤	澤水困	火山旅	雷地豫	風天小畜	水澤節	山火賁	地雷復
二世	天山遯	澤地萃	火風鼎	雷水解	風火家人	水雷屯	山天大畜	地澤臨
三世	天地否	澤山咸	火水未濟	雷風恒	風雷益	水火既濟	山澤損	地天泰
四世	風地觀	水山蹇	山水蒙	地風升	天雷无妄	澤火革	火澤睽	雷天大壯
五世	山地剝	地山謙	風水渙	水風井	火雷噬嗑	雷火豐	天澤履	澤天夬
遊魂	火地晉	雷山小過	天水訟	澤風大過	山雷頤	地火明夷	風澤中孚	水天需
歸魂	火天大有	雷澤歸妹	天火同人	澤雷隨	山風蠱	地水師	風山漸	水地比

3. 得卦

괘를 얻는 것을 '득괘'라고 한다. 육효점이란 하늘로부터 괘를 통해 계시를 받는 것으로, 하늘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미래의 일을 물어야 한다. 점이란 한 가지 일에 대하여 한 번만 한다¹⁹⁾. 득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揲著法·擲錢法·산대법·시간작괘법, 物件作卦法 등이 있다. 본인이 즐겨 쓰는 작괘법을 사용하되 반드시 료를 정해놓고 사용해야 한다.

1) 揲著法²⁰⁾

시초법은 『周易·繫辭』의 대연장에서 기초한 것으로 강가

15) 一貞八悔 : 貞은 정고하게 있다는 뜻이고 悔는 움직임인, 소성괘 중 한 괘를 본체로 밑에 두고, 위에만 八卦를 차례로 바꾸어 놓아, 한괘당 대성괘 八卦를 만드는 방법이다.
16) 김석진, 大山周易講解(上經), 서울, 대우학당, 1993, pp. 32-33.

17)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끄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39.
18) 심경호 譯,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pp. 184-186.
19)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끄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41.
20)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46-47.

나 야산의 띠풀의 줄기를 잘라다가 사용한다.

(1) 시초 50개를 준비한다. 이 50개는 河圖의 천지 大衍數이다. 50개 가운데 1개는 太極數인 씨앗을 상징하므로 빼어 바닥에 가로로 정중하게 고정시켜 놓는다.

(2) 나머지 49개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눈 높기로 올린 다음 경건하게 두 손에 나누어 쥐다. 오른손에 있는 것이 地策으로 바닥에 내려 놓고, 이 중에서 다시 한 개를 뽑아 새끼손가락에 꽂아 人策으로 삼으며, 왼손에 있는 것은 天策이 된다. 天地人 三才를 상징한다.

(3) 왼손의 天策을 4개씩 공제한 다음 나머지 숫자를 둘째손가락에 끼운다. 이 때 4로 나누어 떨어지면 4개를 쫓는다.

(4) 바닥에 놓았던 地策을 들고 다시 4개씩 공제하여 나머지 숫자를 셋째손가락에 끼운다. 새끼·둘째·셋째손가락에 끼워 있는 것을 모두 합하면 5개 아니면 9개가 된다. 이것을 가로로 놓여 있는 태극수 위에 세로로 놓으면 비로소 一變이 끝난 것이다.

(5) 다시 사용하였던 天人地策을 걷어 모아 두 손으로 치켜들고 ①에서 ④의 과정을 반복하면 4개 아니면 8개의 책수가 나오니, 이것을 太極數 위에 또 세로로 놓으면 二變이 끝난다.

(6) 다시 사용하였던 天人地策을 걷어 모아 두 손으로 치켜들고 ①에서 ④의 과정을 반복하면 三變이 완료된다.

(7) 太極數 위에 있는 一變·二變·三變의 책수를 보면 각각 4, 5, 8, 9개의 무더기가 있다. 4~5개의 무더기를 少數라 하고, 8~9개의 무더기를 多數라 한다.

(8) 一多兩少는 少陰이니 --로 표시하고, 一少兩多는 少陽이니 -로 표시하며, 세 무더기가 모두 少數이면 老陰이니 -/로 표시하여 陽爻 발동으로 하고, 세 무더기가 모두 多數이면 老陰이니 --/로 표시하여 陰爻 발동으로 삼는다.

(9) 이로서 六爻 가운데 한 효를 얻는다. 육효를 모두 얻으려면 18變이 필요하므로 十八變法이라고도 한다.

2) 擲錢法²¹⁾

엿전 혹은 동전을 3개 준비하여, 숫자가 있는 곳을 陽, 글자나 그림이 있는 곳을 陰으로 정하고 3개를 동시에 던져서 한 효를 얻는다. 一陰兩陽은 少陰이니 --로 하고, 一陽兩陰은 少陽이니 -로 하며, 세 개가 모두 陽이면 老陽이니 -/로 하여 陽爻 발동으로 하고, 세 개가 모두 陰이면 老陰이니 --/로 하여 陰爻 발동으로 삼는다.

3) 산대법²²⁾

대나무를 깎아 길이 18~20cm 정도의 산대를 여덟개 만들어 1에서 8까지의 숫자를 표시한다. 1은 乾, 2는 兌, 3은 離, 4는 震, 5는 巽, 6은 坎, 7은 艮, 8은 坤을 뜻한다. 산대 여덟개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린 뒤 왼손으로 1개를 뽑아 內卦를 얻는다. 다시 처음과 같이 하되 오른손으로 1개를 뽑아 外卦를 얻는다. 다시 반복하여 왼손으로 1개를 뽑아 動爻로 삼는다.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부터 먼저 뽑는다. 動爻를 할 정할 때 7이나 8이 나오면 6을 제한 1과 2가 動爻이다.

4) 時間作卦法²³⁾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8로 나누고 남은 숫자를 上卦로 하고, 60분을 기준으로 하여 8로 나누고 남은 숫자를 下卦로 하며, 60초를 기준으로 하여 6으로 나누고 남은 숫자를 動爻로 한다. 숫자에 해당하는 괘는 산대법과 같다.

5) 物件作卦法²⁴⁾

바둑알·콩·구슬 등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時間作卦法과 유사하다. 사용하려는 물건을 깨끗이 씻은 뒤, 첫번째 한움큼 집어 8로 나누어 남은 수로 內卦를 삼고, 두번째 한움큼 집어 8로 나누어 남은 수로 外卦를 삼으며, 세번째 한움큼 집어 6으로 나누어 動爻로 삼는다. 숫자에 해당하는 괘는 산대법과 같다.

4. 육효구성

1) 納甲法

육효점에서는 여섯개의 효에 각각 地支를 붙이게 된다. 이 地支를 붙이는 법을 納甲法이라 하고, 각 효에 붙은 地支를 飛神이라고 한다. 飛神은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²⁵⁾.

Table 2. 納甲一覽表

數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卦	乾宮	兌宮	離宮	震宮	巽宮	坎宮	艮宮	坤宮
外卦 (上卦)	上爻	戌	未	巳	戌	卯	子	寅
	五爻	申	酉	未	申	巳	戌	子
	四爻	午	亥	酉	午	未	申	戌
內卦 (下卦)	三爻	辰	丑	亥	辰	酉	午	申
	二爻	寅	卯	丑	寅	亥	辰	午
	初爻	子	巳	卯	子	丑	寅	辰

2) 變爻

變爻는 動爻의 爻를 바꿔서 나타나는 卦이다. 陽爻가 動하면 陰爻로, 陰爻가 動하면 陽爻로 바뀐다. 爻의 陰陽이 바뀌면 卦가 바뀌고, 卦가 바뀌면 飛神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점을 쳤는데 澤山咸卦가 나오고 動爻는 初爻이면, 내괘는 艮卦이므로 飛神이 辰午申이 붙고, 외괘는 兌卦이므로 亥酉未가 붙는다. 動爻가 初爻이므로 變爻가 되면 내괘가 離卦로 바뀌면서 澤火革卦로 바뀌고 內卦의 飛神은 卯丑亥가 붙는다.

3) 六親

六親이란 부모, 자손, 관귀, 처제, 형제 등 다섯 가지의 인간 관계를 말한다. 육친은 五行의 생극비화로 정해진다. 오행의 기준은 64괘 五行屬宮의 오행이 기준이다. 나를 生한 자는 父母요, 내가 生하는 자는 子孫이며, 나를 克하는 자는 官鬼이고, 내가 克하는 자는 妻財이며, 나와 오행이 같은 자는 兄弟이다²⁶⁾. 예를 들어 澤山咸卦의 五行屬宮은 兌金宮이므로 初爻의 辰은 父가 되고, 二爻의 午는 官이 되며, 三爻의 申은 兄이 되고, 四爻의 亥는 孫이 되며, 五爻의 酉는 兄이 되고, 上爻의 未는 父가 된다. 變卦인

23)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48-49.
 24)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46-47.
 25)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47-48.
 26)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50-51.

21)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 48.
 22)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42-43.

澤火革卦의 五行屬宮은 坎水宮이므로 初爻의 卯는 孫이 되고, 二爻의 丑는 官이 되며, 三爻의 亥는 兄이 되고, 四爻의 亥는 兄이 되며, 五爻의 酉는 父가 되고, 上爻의 未는 官이 된다. 澤山咸卦를 보면 六親 가운데 財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괘에 나타나지 않은 六親을 伏神 또는 隱伏이나 沒神이라고도 한다. 伏神을 구하는 법은 卦가 속한 五行屬宮의 初世卦에서 伏神에 해당하는 飛神이 있는 곳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澤山咸卦는 兌金宮의 卦로 金의 財인 木은 初世卦인 兌卦의 二爻인 卯이므로, 咸卦의 二爻인 午에 財伏神인 卯가 숨어있다.

4) 世應

각 卦에는 主客이 되는 爻가 있다. 世는 주인인 나이고, 應은 객으로 상대방이다. 각 宮의 初世卦는 上爻에 世가 붙는다. 一世卦는 初爻, 二世卦는 二爻, 三世卦는 三爻, 四世卦는 四爻, 五世卦는 五爻에 차례로 世가 붙고, 遊魂卦는 四爻, 歸魂卦에는 三爻에 世가 붙는다. 應은 世에서 세 爻를 건너 정한다. 初爻가 世이면 四爻가 應이고, 二爻가 世이면 五爻가 應이며, 三爻가 世이면 上爻가 應이고, 四爻가 世이면 初爻가 應이며, 五爻가 世이면 二爻가 應이고, 上爻가 世이면 三爻가 應이다²⁷⁾. 이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예를 들어 澤山咸卦는 兌金宮의 三世卦이므로 世는 三爻이고 應은 初爻이다.

Table 3. 卦에 따른 世應

卦	初世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遊魂	歸魂
世	上爻	初爻	二爻	三爻	四爻	五爻	四爻	三爻
應	三爻	四爻	五爻	上爻	初爻	二爻	初爻	上爻

5) 神殺

(1) 六獸²⁸⁾

六獸란 靑龍·朱雀·勾陣·騰蛇·白虎·玄武를 말한다.

靑龍은 喜神으로 用神에 임하면 大吉하다. 음주가무의 신이다. 朱雀는 凶神으로 구설시비·말썽을 부리는 신이다. 그러나 소식점이나 언론·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의 점에서는 길신으로 본다. 勾陣은 凶神으로 용신에 임하면 모든 일이 더디게 되거나 만사 불통한다. 그러나 토지매매점에서는 매매가 빨리 이뤄진다. 騰蛇는 凶神으로 괴이한 일이나 놀랄 일이 있게 된다. 발동하면 일이 꼬이거나 성가신 일이 생긴다. 白虎는 凶神으로 투쟁과 송사, 질병의 신이다. 발동하면 흉사만 있다. 玄武는 凶신으로 도적·사기·실물로 손재한다. 淫亂神이다. 六獸는 점치는 날의 日干에 따라 각 爻에 붙인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Table 4. 日干에 따른 六神

日干	甲乙	丙丁	戊	己	庚辛	壬癸
上爻	玄武	靑龍	朱雀	勾陣	騰蛇	白虎
五爻	白虎	玄武	靑龍	朱雀	勾陣	騰蛇
四爻	騰蛇	白虎	玄武	靑龍	朱雀	勾陣
三爻	勾陣	騰蛇	白虎	玄武	靑龍	朱雀
二爻	朱雀	勾陣	騰蛇	白虎	玄武	靑龍
初爻	靑龍	朱雀	勾陣	騰蛇	白虎	玄武

27)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53.

28)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63.

(2) 空亡²⁹⁾

天干은 10자이고, 地支는 12자이다. 甲에서 쫓까지의 十干에 十二支를 子부터 붙이면 끝의 地支의 두 자는 짝이 없다. 이것을 空亡이라고 한다. 甲子旬中은 戊亥, 甲戌旬中은 申酉, 甲申旬中은 午未, 甲午旬中은 辰巳, 甲辰旬中은 寅卯, 甲寅旬中은 子丑이 空亡이다. 공망은 〇로 나타낸다.

(3) 十二運星³⁰⁾

十二運星이란 각 五行의 旺相休囚를 나타낸다. 六爻에서는 死絶墓와 旺相休囚를 많이 사용한다. 死·墓·絶 : 일생 중에 가장 약한 곳이다. 육효점에서 용신이나 세효가 일진이나 월건에서 死絶墓이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실패·쇠약·침체·이별 등의 凶地이다.

① 胎 : 모체 내에 잉태되는 곳이니 쇠약하므로 점에서는 대체로 凶地이다.

② 養 : 출생하기 위한 전기를 만났으나 점에서는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③ 生 : 모체에서 분리되어 출생함이나 경사스러운 자리이다. 그러므로 번영과 행복이 보장되는 곳이기도 하나 육효점에서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浴 : 출생한 아이를 목욕시킨다는 뜻으로, 본인은 망신스럽고 고생스러운 불만의 장소이다. 敗地라고도 한다.

⑤ 帶 : 띠를 두른 아이를 교육시키고 규범이나 예의범절을 가르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을 키워 주는 곳이다.

⑥ 冠·旺 : 일생에서 가장 왕성한 곳이니, 특히 六爻占에서 用神이 이를 만나면 자기의 능력도 강력하지만 타력의 도움이 있어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판단한다. 冠은 祿이라고도 한다.

⑦ 衰 : 쇠퇴하여 점차 약한 곳으로 퇴보하는 곳으로 대체로 凶地이다.

⑧ 病 : 늙고 병들어 활동력이 없는 상태이다.

Table 5. 十二運星

	絶	胎	養	生	浴	帶	冠	旺	衰	病	死	墓
甲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乙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丙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丁	子	亥	戌	酉	申	未	巳	辰	卯	寅	丑	戌
庚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辛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壬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癸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Table 6. 變卦 納甲의 예

本卦 : 澤山咸(兌金宮)				變卦 : 澤火革(坎水宮)				
干	卦	支	六親	卦	支	六親		
少女	--	應	未	父	少女	--	未	官
丁	--	酉	兄	父	丁	--	酉	父
	--	亥	孫		--	世	亥	兄
少男	--	世	申	兄	中女	--	申	兄
丙	--	午	官	己	--	丑	官	
	--	辰	父		--	應	卯	孫

29)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 64.

30)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25-26..

5. 解斷

1) 八神³¹⁾

用神·原神·飛神·伏神·忌神·仇神·進神·退神을 八神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神이란 十二地支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1) 用神: 점을 주관하는 사람, 또는 점을 보는 목적을 말한다. 예컨대 자기점을 볼 때는 世가 用神이요, 부모점을 볼 때는 부모가 用神이다. 또 재물점이면 처재가 用神이요, 관직점에는 관귀가 用神이다. 用爻라고 한다. 六爻에서 가장 중요하다.

(2) 原神: 用神을 생해주는 육친을 말한다.

(3) 飛神: 전술한 바와 같이 납갑법에 따라 괘효 옆에 붙이는 地支를 말한다.

(4) 伏神: 전술한 바와 같이 卦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육친을 말한다.

(5) 忌神: 用神을 克하는 육친, 또는 오행을 말한다.

(6) 仇神: 忌神을 생하는 육친, 또는 오행을 말한다.

(7) 進神: 動爻와 變爻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變爻가 動爻와 오행이 같고, 十二地支의 순서 상 동효보다 앞으로 나간 경우에 진신이라고 한다.

(8) 退神: 變爻가 動爻와 오행은 같지만 十二地支의 순서상 동효보다 뒤로 물러선 경우이다.

2) 用神 정하는 법³²⁾

(1) 世爻: 자기 자신을 위한 점, 즉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吉凶을 묻는 점에는 世爻가 用神이다.

(2) 父母爻: 부모를 위한 점에는 부모효가 用神이다. 조부모나 증조부도 해당된다. 스승과 웃어른,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와 이모, 친구의 부모, 부모와 동연배인 어른도 부모효를 用神으로 삼는다. 집, 자동차와 배, 옷, 화물, 문서·계약서·책,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도 부모효가 用神이다. 천시점에서 부모효는 雨이다.

(3) 兄弟爻: 형제자매, 친구, 동창, 직장동료, 결혼·연애의 라이벌을 위한 점에는 형제효가 用神이다. 천시점에서 형제효는 바람이다.

(4) 子孫爻: 아들딸(자식), 손자손녀, 조카, 친구의 자녀를 위한 점에는 자손효가 用神이다. 문하생이나 충신, 경찰·군인, 기축, 약도 用神은 자손효다. 천시점에서 자손효는 일월성신이다.

(5) 妻財爻: 아내와 첩(처첩), 애인, 형수·제수, 친구의 처첩을 위한 점에는 처재효가 用神이다. 종업원이나 하인, 금·은·보석, 식량, 돈(유가증권), 물건값(가치), 참고, 집물도 처재효다. 천시점에서 처재효는 맑음·맑이다.

(6) 官鬼爻: 신랑과 정부, 남자에인, 남편의 형제, 남편의 친구, 상관, 관직, 지위를 위한 점에는 관귀효가 用神이다. 관청, 판사, 송사, 관재, 재앙, 질병, 귀신, 도적, 난신, 시체도 관귀효를 用神으로 삼는다. 천시점에서 관귀효는 우뢰·번개·안개이다.

6. 病證占³³⁾

1) 官鬼 五行의 五臟에 배속된 부분에 이상이 나타난다. 衰하면

輕證이고 旺하면 重證이다. 안정하면 누워 앓는 병이요 발동하면 煩躁의 병이다. 木은 肝이요 병이 생기면 그 증세가 반드시 感冒 風寒하며 或 四肢가 不和한 종류에 속한다. 火는 心經에 속하고, 발열함은 인후가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것을 수반한다. 土는 병이 脾胃에 있고 증세는 虛黃과 浮腫이며 或 時氣, 瘟疫이 되기도 한다. 金은 肺이고, 증세는 嗽咳와 虛怯하며, 或 氣喘하고 痰이 많기도 한다. 水는 腎이고, 惡寒과 식은 땀과 遺精을 주재하며 或 遺精과 白濁類에 속한다.

2) 鬼가 있는 八卦宮의 八卦의 인체소속부위에 따라 병이 나타난다. 坤은 배요, 乾은 머리, 兌는 반드시 喉風咳嗽 등류이며, 艮은 손, 震은 발이며, 巽은 모름지기 中風과 腸風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2. 1) 八卦에 있다. 여기에 그 鬼의 五行성질과 動變의 관계까지 참작하여 그 병세를 추산한다. 예를들어 鬼가 坤宮에 있어 腹中에 병이 있는 경우, 木鬼는 絞腸痧痛이며 或 大腸에 病이 되기도 한다. 火鬼는 반드시 腹癰(배의 종기)이다. 土鬼는 食積癖塊하여 或 沙腸蟲症이 되기도 한다. 金鬼는 脇肋疼痛인데 위쪽으로는 胸痛이요, 아래쪽은 腰痛이 된다. 水鬼는 腹中의 疼痛인데, 通하여 財로 化하거나 或 水鬼로 化하면 반드시 설사 환자이다.

3) 鬼가 속한 爻의 六獸에 따른 病證

靑龍은 酒色過度 및 그로 인한 허약 무력증이다. 騰蛇는 心經의 병이고, 심신 不定이니 앓으나 누우나 불안하다. 朱雀은 언어가 顛倒됨이요, 미친 소리로 헛소리를 하며 신열이 있고 얼굴은 붉다. 勾陣은 胸滿腫脹하고 脾胃가 不和하다. 白虎는 질타와 氣悶이며, 근육을 상하고 뼈를 다친다. 여인일 때는 血崩血暈이며 산후의 여러 가지 병이 되니, 白虎는 血神이기 때문이다. 玄武는 색욕 태과로 우울과 답답함이 心에 온 것인데, 本宮일 때는 陰虛로 한다. 男子의 경우 化하여 子孫이 되면 陰症陰虛이니, 玄武는 暗昧之神이기 때문이다.

4) 鬼가 隱伏된 六親에 따른 病證

兄弟에 은복되면 氣가 음식으로부터 침해받은 것으로 반드시 경쟁이나 구설로 인하여 체하였거나 감기이며, 혹 저주가 있어서 병을 만난 것이다. 父母에 은복되면 반드시 노심초사하고 노력과 우려가 심하여 神을 傷한 병이거나, 혹 動土로 인하여 난 병이기도 하고, 혹 부모로 인하여 병을 얻기도 한다. 鬼가 은복되면 병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게 되면 世爻 아래에 은복된 경우에는 과거의 病이 재발한다. 妻財가 은복되면 필시 배고파 상하고 배불러 앓은 것이다. 혹 재물로 인하여 난 병이거나 혹 부녀로 인해서 난 병이다. 食傷에 은복되면 술과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난 병이고, 여름에는 지나치게 찬 바람을 즐기다가 난 병이며, 겨울이라면 너무 두꺼운 옷에 감쌌기 때문에 난 병이고 혹 보약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난 병이다.

5) 變爻에 의한 病證

官爻가 進神으로 化하면 病이 증가하고 退神으로 化하면 病이 감소한다. 鬼가 변하여 兄弟가 되면 반드시 구설과 토하는 구역질로 인한 병이다. 혹 이것이 傷食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 三爻였다면 반드시 방안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거하다가 風寒을 만나서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鬼가 변하여 父母가 되면 修造하는 곳에서 병을 얻은 것이고 만약 五爻에 있으면 도중에서

31)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67-69.

32)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꼭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pp. 69-70.

33)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259-270.

비를 만난 것이다. 官이 化하여 鬼가 되면 옛부터 갖고 있던 질병과 새로운 병이 함께 발생한다. 鬼가 鬼로 化하면 옮기고 다양하게 변한다. 鬼가 변하여 財가 되면 傷食이며, 혹 매매의 일로 인하여 생긴 病이다. 鬼가 변하여 子孫이 되면 僧道나 寺院, 혹은 고기잡이 천렵으로 인하여 생긴 병이다.

6) 內外傷 감별

內外傷은 卦에서 鬼의 위치로 추단한다. 本宮은 집에 있으며 얻은 병으로 보는데 下卦는 內傷이며, 他卦는 다른 곳에서 감염된 병이고, 上卦는 外感으로 하는 것이다. 上卦·下卦 모두에 鬼가 있으면 內傷과 外感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그 증후가 일정치 않을 것이다. 上卦와 下卦에 鬼가 있으면 病은 반드시 內外 모두에 감염된 것이다. 內外가 함께 발동하거나 함께 안정되면 한 가지로 함께 받은 병이며, 두 鬼가 스스로 沖하는 경우는 감염도 함께 하고 낫는 것도 함께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7. 內外傷감별

	上下爻	本宮病		他卦病		上下俱鬼
上卦	外感	鬼	집안병	世		鬼
		世				
下卦	內傷	應	외출병	應	鬼	鬼
		鬼				

內外相感
證候複雜

應鬼가 身과 合하면 타인에게서 전염된 것이다. 應爻가 官鬼에 임하고 用爻를 刑剋하면 반드시 친구나 남의 문병에서 전염된 것이다. 鬼爻가 土에 속하면 때에 따라 유행하는 疫症으로 본다. 用爻가 應爻에 임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집에 누워 앓는 병이다. 世官星이 用神을 傷하면 옛날의 병재가 거듭 발병한 것이다. 世爻가 官爻가 되면 원래부터 있었던 병뿌리인데, 用神이 傷하면 이는 반드시 옛날 병이 재발한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體를 이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卦身에 鬼를 갖게 되면 역시 옛날 병으로 판단한다.

7) 病의 輕重

鬼가 內宮에 있으면 病은 반드시 밤에 심하고, 鬼가 外卦에 있으면 病은 반드시 낮에 심하다. 만약 卦中에 두 개의 鬼가 있음에 하나는 旺하고 하나는 空亡이거나, 혹 하나는 발동하고 하나는 안정하면 반드시 낮에만 가볍고 밤에는 심하다. 무릇 動爻는 시작이요 變爻는 마침이니, 만약 動爻가 用神爻를 生扶하는데 變爻가 用爻를 刑剋하면 반드시 아침에는 가벼우나 저녁에는 열이 나고, 낮에는 가볍고 저녁에는 심하다. 動爻가 剋하고 變爻가 生하면 이와 반대로 단정한다.

8) 病의 症狀

(1) 鬼爻에 관계없이 水가 火로 변하거나 火가 水로 化하면 寒熱이 왕래한다. 다만 干이 主象을 범한 것은 모두 寒熱往來하는 증세이다. 水火 두 爻가 함께 발동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水가 旺하고 火가 衰弱한 것은 寒多熱少하다. 水가 火로부터 傷함을 당하면 늘 열이 있는 가운데 잠깐 寒氣가 나타난다. 坎宮에서 火가 발동하면 안으로는 寒하고 밖으로는 熱이 난다. 離宮에서 水가 발동하면 피부는 寒하고 뼈에는 熱이 난다. 만약 일진을 대동하

면 이는 반드시 화질이다.

(2) 火鬼가 財星을 沖하는데 上卦에 임하면 구역질과 많이 토하는 병이다. 火는 炎上하고 財星은 음식이 되므로 病占에서 火鬼가 外財를 剋하면 이는 반드시 구토증일 것이고, 증증일 때는 위병이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3) 水官星이 土로 변화하여 下卦에 놓이면 소변을 못보게 된다. 水官星이 변화하여 土가 되면 回頭剋이 되는데, 本宮의 初爻에 있으면 이는 소변불통이고, 陰에 속하면 대변불통이다. 또, 陽宮에 陰象이거나 陰宮에 陽象일 때는 대소변 모두 불통이다. 만약 白虎가 가입되면 陽爻일 때는 소변에 피가 나오고, 陰爻일 때는 설사나 대변에 피를 동반하게 되니 白虎는 血神이기 때문이다. 또 刑害를 대동하면 치루증이 된다.

(4) 鬼가 兌宮에 있으면 입안에 병이 있다. 만약 金鬼가 忌神으로 化하거나 또는 忌神이 金鬼로 化하면 반드시 牙疔이 헐었다고 보고, 忌神으로 化하지 않는다면 이는 치통에 불과하며, 안정된 鬼爻로 沖하면 이가 반드시 동요하게 된다.

(5) 鬼가 震宮에 있으면 病은 발에 있다. 勾陣이 가입되면 반드시 발에 腫이 있고, 白虎가 가입되면 반드시 다리의 折傷이나 파손이 있으며, 土鬼가 木으로 化하면 각기병이 된다. 木鬼는 酸痛이며, 木水鬼는 습기이며, 火鬼는 반드시 瘡毒을 발생하고, 金鬼는 다리의 작은 뼈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며 뼈에 통증이 있는데, 혹 칼이나 연장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다.

(6) 鬼가 離宮에 있는데 변화하여 水가 되면 痰火이고, 官이 乾象에 오는데 木으로 변하면 頭風이 골고루 있으며, 震卦에 騰蛇가 임하였는데 발동하면 驚悸와 癲狂이 되고, 艮卦가 巳午를 만나거나 交重되면 癰疽나 瘡毒이 된다.

(7) 離宮의 鬼가 水爻로 化하거나 水가 발동하여 鬼로 化하면 痰火 증후이다. 乾宮의 鬼가 木爻로 化하거나 木이 動하여 鬼로 변하면 頭風과 眩暈이다. 震이 外卦에 있을 때 다리 병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병인데, 心神이 황홀하니 震은 動을 주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騰蛇가 가입하여 발동하면 癲狂과 驚癇병이 되고, 소아일 경우에는 驚風이다. 만약 沖을 만나면 담을 넘거나 지붕 위에서 생긴 병이다. 艮이 火鬼를 만나면 반드시 증기병이 발생하고, 만약 변하여 土鬼가 되면 부종과 고창증 등이다.

(8) 卦內에 財가 없으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財는 음식을 주재한다. 만약 空亡을 만나면 음식을 받지 않는 병인데, 만약 上卦가 아닐 때는 음식 생각도 안난다.

(9) 世爻와 應爻 중간을 間中이라 하고 가슴의 흥격처가 된다. 官鬼가 間中에 임하면 필연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며 不通한다. 木鬼는 心痒嘈雜하고, 火鬼는 心痛이 많으며, 土官은 헛배가 부르고 속이 답답하여 시원치 않고, 金鬼는 胸膈骨痛이며, 水鬼는 痰飲壅塞하다. 만약 財爻로 化하거나 財爻가 鬼로 化하는 것은 필연코 宿食未消하고 흥격에 불리한 것들이다.

(10) 世爻가 쇠약한데 墓에 들면 神도 곤란하게 생각하여 溝하지 아니하다. 世爻가 墓에 들어가면 병은 반드시 혼미하여 정신이 왔다갔다 하니, 旺相하고 有氣하면 행동하면서 앓는 병이고, 쇠약하면 말문을 닫아 말을 못하게 되니 밝을 때는 두려워하고 밤에 어두움을 좋아한다.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

하고 일어나기를 싫어하며 눈을 뜨지 않는다. 다시 陰宮에 앉으면 이는 반드시 陰症인데, 用爻가 墓에 들었거나 鬼墓가 用神에 임하였거나 原神이 墓에 들었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이 법에 따라 단정한다.

(11) 用神이 金에게 傷하면 四肢 전체가 걸리고 시큰시큰한데 主는 木이 靚을 만났기 때문이다. 皮骨이 傷殘하게 된다. 木이 발동하여 靚해 오면 土爻가 제약을 받을 것이니 皮골이 손상된다. 火가 仇神이 되면 喘咳의 재앙이 되고, 火가 用神이 되면 來靚하면 木爻가 傷함을 만나게 되니 사지 마디가 시큰거리고 통증이 온다. 水가 와서 害하면 황홀에 빠지는 증세가 된다.

(12) 三爻가 空亡되면 腰軟하다. 或 旺相하고서 生扶되면 요통이 된다. 空亡이 아니더라도 動爻나 일진이나 官爻를 靚神하는 것은 閃腰의 통증이다. 動爻가 空亡이라도 역시 그러하다. 鬼爻가 이 爻에 있는 것도 역시 요통을 주재한다.

(13) 官鬼가 上六 위에서 靚傷당하면 頭疼하니 즉 官鬼가 임하는 곳에 病이 있는 것이다. 火가 用神이 間爻에서 靚하거나 火가 間爻에 임하였으면 이 모두 胸膈으로 불리함을 주재하는데 忌神이라도 역시 그러하다.

(14) 財가 卦中에서 발동하면 토하지 않으면 설사한다. 財爻가 上卦에 임하여 발동하면 토하고 下卦에서는 설사한다. 만약 舍任을 만났다면 토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고, 설사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다.

(15) 木이 世上에서 일어나면 가려움증이 아니면 곧 통증이다. 寅卯 두 爻는 木에 속하는데, 寅木은 통증을 주재하고 卯木은 가려움증을 주재한다.

9) 病의 예후

官鬼가 절처를 만났으면 그 병은 가벼운 것이다. 生扶함을 만나면 이른바 絕處逢生이나 그 병은 반드시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다.

7. 病體占³⁴⁾

子孫은 鬼煞을 극제한다 해서 “解神” 또는 “福德”이라고 하고, 病占에서는 “醫藥神”이라고도 한다. 卦中에 子孫이 없으면 鬼神에 대한 방비가 없으므로 약을 먹어도 효험을 못 본다. 그러나 부모나 남편의 病占이라면 子孫이 발동하면 남편 자리를 傷殘하고 부모명에서는 官星이 原神이기 때문에 子孫이 발동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다음으로 볼 것은 主象이니 두려운 바는 靚害刑沖을 만나는 것이다. 主象은 用神을 말한다. 火가 用神이라면 官星이 用神이고 妻占이라면 財가 用神이 됨을 말한다. 火가 用神이 刑沖靚害를 만난다면 곧 病人은 병을 악화시켜 위험에 빠지게 하므로 꺼리는 것이다. 그러나 靚害를 받더라도 일진이나 동효로부터 生扶함을 만나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점이라면 마땅히 福德의 動靜을 궁구하고, 수명을 알고 싶으면 鬼煞의 旺衰를 추상한다. 福德이란 그 義가 子孫의 능력으로는 경미하고 原神에 비중이 크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鬼煞에서는 그 이치가 忌神이라는데 있는 것이니 官鬼라는 이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병점에서는 原神이 왕함을 만나야 用神에서 공망이나 破함이 되거나 은복된다 하더

라도 그 병이 치료가 된다. 火가 用神이 旺動함을 만났다면 用神이 出現하여 공망이나 破를 만나지 않아야 타고난 祿命을 마땅히 다할 수 있을 것이다.

1) 吉

(1) 神이 福德에 임하면 勢가 비록 험하다고 하더라도 의약으로 이겨낸다. 用神과 卦身은 한 卦의 體가 되는 바, 子孫이 임하면 결단코 근심되는 바가 없다. 비록 병세가 凶險한 것일지라도 약을 쓸 경우 쉽게 완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病占에서 身에 子孫이 임하였다면 大吉한 징조이다. 火가 父母爻가 발동하여 靚傷한다면 淸으로 불미한 일이나, 만약 父母爻를 靚神함이 있을 때는 무방하다.

(3) 用神이 絕處逢生이 되면 위험하였다가 구원됨이 있다. 用爻가 絕處에 들었는데 卦中에서 動爻가 생하여 준다면 絕處逢生이 되어 凶한 가운데서도 반대로 吉함으로 구제되는 象이다.

(4) 用神이 太弱함은 마땅치 못한 것이니 약한 즉 병인의 체력이 허하여 힘을 겁탈당하므로 낫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일진을 얻었거나 動爻로부터 生助되거나 扶助되면 중병으로 위험하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5) 卦中의 父母爻가 動來하여 用爻를 靚神하거나 火가 用爻가 발동하여 父母로 변화하면 靚神하지 아니하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적은 勞碌만 있을 뿐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병이 되면 반복되고, 또 沈重만 더한다.

(6) 日辰에 子孫이 임하고 用爻를 生扶하거나 拱合하면 반드시 약의 효과를 보아 병은 나을 것이다.

(7) 鬼가 발동하였는데 일진의 破를 만나면 위태함이 없다. 官爻가 발동하고 火가 用神이 발동하면 이미 흉화를 이룬 象이지만, 만약 일진이나 動爻가 靚神하면 이른바 逢生으로서 이미 凶을 해산시킬 것이다.

2) 凶

(1) 世爻에 鬼爻가 임하면 병은 비교적 가볍다고 하지만 치료가 어렵다. 자기 病占에서 世爻에 鬼를 만나는 것은 꺼리는 것으로 반드시 그 병체를 이탈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2) 用神이 건장하고 굳센데 다시 돕는다면 太剛이니 부러질까 두렵다. 무릇 用神이 월건에 임하고 또 일진의 生扶나 拱合이 있었는데 다시 動爻로부터도 生扶가 되면 太剛이니 곧 부러질 징조이다. 가장 걱정되는 일이 用神의 月建을 만나는 것으로 凶할 것이다. 만약 일진이나 動爻의 刑靚이 되면 그 旺神에게는 혐의 될 것이 없다. 이는 이른바 太過者는 그 힘을 덜어주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3) 主象이 공망이 되거나 墓絕空破가 되는데 救함이 있으면 무방하나 救함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구함이란 生扶拱合을 말한다.

(4) 祿이 妻財에 매여 있는데 空亡이 되면 음식 생각이 없고 壽는 父母에 속하므로 발동하면 반대로 天年을 재촉한다. 病占에서 妻財를 食祿으로부터 卦에 만약 財가 없거나 있어도 공망으로 떨어지면 이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父母爻가 발동하는 것은 病占에서는 꺼리는 것이니 그 福德를 靚神하기 때문이다. 官煞이 방자하고 난동함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른바 “反促天年”이라 할 것이다. 형제의

34)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271-280.

병점이라면 반대로 발동함이 마땅할 것이다.

(5) 子孫은 藥神인데 死絶에 임하였거나 혹 空亡에 빠졌다거나 혹 은복되어 卦上에 나오지 못하였다면 병중에 있는 자가 肥甘調理를 할 수 없다. 혹 일진에 혹 應爻에 子孫을 대동하고 用爻와 生合된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서 진지를 올리고 좋은 음식물로 자양하는 것과 같다.

(6) 자기 병점에서 世上의 鬼가 日辰의 墓에 들어가거나 혹 발동하여 父의 墓庫로 들어가면 凶하다. 世爻가 鬼墓를 만났는데 발동하여도 역시 흉하다.

(7) 鬼爻가 발동하면 그 病은 반드시 중병인데 化하여 長生에 들면 하루 만에 重症이 되는 一日之象이 된다.

(8) 用神이 鬼煞과 연결되면 반드시 죽는다. 用神이 鬼煞에 連한다 함은 곧 用神이 化하여 回頭靛이 됨을 말한다. 가령 用神이 變하여 回頭靛이 되었는데 日이나 月이나 動爻로부터 解救함이 없다면 위태함이 자주 변한다.

(9) 福德이 忌爻로 化하면 병세는 조금 낮은 듯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子孫이 발동하면 官鬼를 制伏시키는 것이니 그 병세는 분명히 감소된다. 그러나 만약 化하여 부모가 되면 回頭靛이니 子孫은 무너져서 그 병세는 낮은 듯하다가 다시 악화되어 중증에 이르게 된다. 子孫이 官爻로 변화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10) 鬼가 은복되고 공망되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오직 부모나 官符, 장인, 장모의 병세의 경우에 해당된다.

(11) 身上의 飛神이나 伏神에 官이 쌍으로 있으면 난치병으로 고생한다. 身이란 卦身 및 用神을 말한다. 가령 身爻 위에 이미 官鬼가 임하였는데 또 다른 爻가 발동하여 身上으로 飛入하여 오거나, 혹 身爻의 前後에 官鬼를 끼고 있거나, 혹 用神의 前後에 官鬼를 끼고 있거나, 혹 世爻에 鬼가 임하였는데 身象에도 鬼가 임하였다면 모두 雙官夾用夾身이라 하여 죽음에 이를 象은 아니지만 심히 곤란한 考終之疾이 된다. 곧 자식의 병에 대한 길흉을 묻는 점과 같다. 恒卦를 얻었다면 3爻와 5爻가 모두 官爻인데 子孫인 午火는 4爻에 居하니 鬼爻의 사이에 끼여 있음을 말한다.

(12) 命이 두 墓 사이에서 幽冥하면 황천 세상 사람이다. 卦로서 보고 鬼墓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世爻를 볼 때는 世爻의 墓가 임함을 볼 것이고 用神은 墓가 주재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무릇 이 세 개의 墓가 卦中에서 출현하였다면 사람에게 보이는 모두 明墓(나타나 있음)라 하고, 변화하여 墓中으로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니 그 墓는 幽冥라 할 것이다. 幽冥에 불구하고 病은 위태하고 곤란함을 주재한다. 혹 이중으로 鬼墓가 夾身하고 있거나, 혹 世爻나 用爻를 官鬼가 양쪽에서 夾拱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망한다. 그러나 日辰이나 動爻로부터 墓爻를 冲破한다면 잠시후에 좋아진다.

3) 치료

(1) 用神爻가 卦上에 나오지 못하고 은복된 것을 밖으로 끌어내려면 반드시 그 值日되는 날이 와야 出露되는 것이다. 혹 오래된 병에서는 반드시 值年值月이 되어야 바야흐로 병이 나올 것이니, 그러므로 主는 延平으로 옮길 날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2) 世爻가 兄弟에 임하여 요란하면 음식을 평소보다 감소시킨다. 이 병은 원래 밥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이다.

(3) 일진에 鬼를 대동하면 빨리 기동하여 근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가령 일진이 官鬼를 대동하고 世爻와 生合하거나 혹 用爻와 生合하면 마땅히 기도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그 생합되는 것을 보아 어느 神인가를 아는 것이다. 가령 生合되는 것이 靑龍 父母라면 “花幡香願”이요, 勾陣이면 “土地城隍”이요, 朱雀이면 “香燈口愿”이요, 騰蛇면 “百怪驚神”이요, 白虎면 “傷司五道”요, 玄武면 “玄帝北陰”인데, 陽象이면 陽爻이 이 神이 있고, 陰象이면 陰爻에 이 鬼神이 있다는 것이 今陳의 대략이다.

(4) 應이 合한 후에 財로 변하였는데 傷하면 문안하며 보내 준 음식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應爻가 발동하여 用爻를 生合하면 마땅히 문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財나 福德을 대동하여 반드시 饋送(제사 올릴 익은 음식을 보내줌)이 있을 것이고, 兄弟를 대동하였는데 用神이 된 것은 饋送이라 하더라도 일체 음식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로 傷害를 발생시킬 것이다. 甞사람의 病占에서는 더욱 기피한다.

8. 醫藥占³⁵⁾

의약점에서는 子孫爻로 약신을 삼고 응효로 의사를 삼는 것이니, 가령 子孫爻가 손상을 받거나 혹 墓絶이 되거나, 혹 官爻가 生旺하거나 하면 이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날 수 없는 병으로 반드시 병을 제압하지 못할 것이다. 또 가령 응효가 旬空에 들면 의사가 다른 곳으로 출장하여 올 수 없는 것으로 아무리 약을 써도 효력이 없다.

1) 藥

(1) 藥占에서 鬼爻는 안정되고 무력한 것이 중요한데, 만약 발동하면 비록 좋은 약을 썼더라도 일시적일 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官鬼가 墓絶이 되는 날을 기다렸다가 약을 쓰면 효력이 나타난다.

(2) 官爻는 무기하고 子孫은 왕성하여야 약이 능히 병을 제압하여 복약 후 효과가 있다. 子孫이 휴수되고 官爻가 왕상하면 약은 경하고 병은 중하여 복약하여도 공이 없다.

(3) 官爻가 발동하여 進神이 되는 경우, 여러 병증이 합병이 되거나, 혹 병세가 일정치 않다. 만약 退神으로 化한다면 이와 반대이다. 子孫은 藥占에서 용신이 되는데, 가령 子孫이 발동하여 進神이 되면 약의 효력이 많고, 退神으로 化하거나 伏吟卦가 되면 약을 제약하여 복용이 불가능하다.

(4) 父母가 발동하면 子孫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약은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 만약 子孫이 有氣하여 힘이 있고 日辰이나 동효가 父母를 靚한다면 이 때는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효력이 있다.

(5) 官爻를 자상히 관찰하고 난 후 약을 쓸 것이니 火土는 차고 서늘한 것이다. 火土가 官爻이면 그 병은 반드시 열이 많이 날 것이니 약은 마땅히 서늘한 것을 써서 공략해야 한다. 金水가 官爻이면 그 병은 多寒이니 반드시 溫熱한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火는 必寒한 약으로, 土는 必涼한 약으로, 水는 必熱한 약으로, 金은 必溫한 약으로 제조해서 치료한다. 또 가령 火鬼가 生旺한 자리에 앉았는데 또 生扶함을 받으면 반드시 大寒之藥劑로 공략해야 한다. 水鬼가 生旺함을 받았는데 舍助하는

35)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pp. 281-292.

것이 있으면 반드시 大熱한 약으로 공락해야 한다. 또 가령 火鬼가 陰宮에 앉아 陰爻가 되었으면 이는 陰虛火動의 증세이니, 이때는 陰을 자양시키고 火를 끌어 내리는 약을 쓴다. 또 水鬼가 陽宮에 있으면서 內卦에 있으면 이는 血氣虛損의 증세이니 補中益氣의 약을 쓴다³⁶⁾.

2) 救醫

(1) 世爻가 空亡이면 반드시 마음 속에 알고 있는 의사만을 구한다. 다른 의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다른 의원이 주위의 간청으로 진료를 하여도 역시 그 약을 쓰지 않는다.

(2) 世爻를 병자의 집으로 하고 應爻를 의사로 본다. 서로 상생 상합하면 친교가 깊은 집이거나 친구이고, 만약 應爻는 왕성한데 世爻가 쇠약하면 병자의 집은 가난하고 의사의 집은 반드시 부자이다. 應이 쇠하고 世가 왕하면 이와 반대로 판단하면 된다.

(3) 福德이 化하여 忌神爻로 되면 약을 잘못 먹어 살신하는 의사이다. 변출한 父母爻가 回頭하면 官鬼를 제압하기가 어려우므로 약으로 인하여 수명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4) 應爻에 官鬼가 임하면 절대로 양의가 아니고, 다시 身·世·用神을 刑剋하면 약을 잘못 써서 손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혹 忌神爻가 임하였거나 혹 化하여 官鬼가 되는 것 등도 이 사람에게 쓰는 약은 모두 마땅치 못한 것이다.

(5) 應爻가 月建에 임하면 반드시 이는 관청 의사이다. 應이 태세를 대동하면 이는 世醫이고, 月建이나 日辰을 대동하면 官醫이다. 다시 月日에 子孫이 임하면 약을 쓸 때 신묘하게 된다. 應爻에 子孫이 임하면 가히 전문 의사에게 부탁하게 된다.

(6) 父가 은복되었으면 명의라도 맥이 어두워서 치료법을 찾지 못한다. 卦中에서 父가 발동하면 子孫이 전권을 갖기가 불가능하므로 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모가 없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靜함이 좋고 발동함은 마땅치 않다. 대개 사람의 기맥은 모두 부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의약점에서 부모효가 없는 것은 돌팔이 의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약을 사용하였는데도 脈理가 밝지 않을 수도 있다.

(7) 子孫爻의 비신으로 의사를 찾는다. 가령 子孫이 子爻에 있다면 마땅히 북쪽에서 의원을 초대해야 하고, 丑爻에 있으면 동북방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寅爻가 福德이라면 五行으로 木이니 그 의사는 동방의 木변이나 草頭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상호를 쓰거나 혹 아호를 木이나 변으로 쓰는 사람이다. 비록 동방이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木과 관련된 의원이라면 능히 치료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8) 五爻가 일어나 福德으로 化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의사라도 도음받을 수 있다. 만약 子孫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서도 日辰이 子孫에 임하여 生合되는 것은 의외로 자기집에 의사가 있어 치료하기도 한다.

(9) 世應이 比和되고 福德이 없으면 의사를 바꾼다. 世應이 比和되고 卦에 福德이 없으면 이때 쓰는 약은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3) 病

(1) 鬼가 日神을 대동하면 오랜 병은 아니다. 鬼가 日神을 대동하고 卦中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당장 흉폭한 병이다. 일진이 비록 用爻라도 卦中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병이 지금은 치열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반드시 약을 받아들여 좋아질 것이다.

(2) 世爻 아래에 官星이 은복되었는데 子孫이 발동하면 비록 신호한 약을 쓸지라도 병뿌리는 항상 견재할 것이다. 자기 병점에서 鬼가 世爻 아래에 은복되었거나 혹 타인의 병점인데 鬼가 用爻 아래에 은복되었다면 그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며칠 후에 다시 재발할까 두렵다.

(3) 쇠약한 가운데 앉은 鬼가 身에 임하면 병이 비록 경한 것 같지만 약을 써도 효력이 없다. 卦身에는 비록 쇠약한 鬼가 임하였더라도 이리저리 얽힌 것이 많아서 유쾌하기가 어려운 상이다. 혹 主象이 身인데 官이 임하여 墓庫가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4) 鬼가 출현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사용하여도 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다. 官鬼는 病으로 卦中에 출현하였으면 쉽게 剋制할 수 있으므로 약을 쓰면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官鬼가 卦中에 출현하지 않았으면 그 병도 은복되어 원인을 알 수 없게 되고 증후도 확실치 않으므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5) 主象이 休囚되거나 絕墓되거나 혹 변화하여 墓絶로 되었는데 다시 克傷되면 비록 良醫일지라도 능히 구할 수는 없다. 재관이 발동하였는데 자손은 공망이면 복약의 노력만 있을 뿐이다. 財官이 함께 발동하면 그 勢가 이미 凶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子孫이 공망을 만났다면 모든 약이 무익하다.

4) 治法

(1) 財가 外宮에 있으면 吐衄을 주재하는데, 만약 用爻와 生合됨을 만나면 약을 먹고 토해 버려야 낫는다.

(2) 子孫이 火에 속하면서 離宮에 앉으면 마땅히 熱藥을 서서 치료해야 한다. 혹 썩뜸 같은 치료법으로도 나올 수 있다.

(3) 坎卦의 子孫은 반드시 땀을 내야하고, 木爻官鬼는 먼저 소풍시켜야 한다.

(4) 用神이 墓絶되고 휴수되면 보약으로서 큰 효력을 볼 것이다. 만약 用爻가 때를 얻어 왕성한데 또 生扶合助함이 있으면 克伐하는 약을 서서 치료한다. 만약 다시 補하면 반대로 害를 보기 때문이다. 子孫이 金이면 刀針을 사용하고, 鬼爻가 木이면 刀針을 사용하면 金은 능히 生水하여 반대로 병세를 돕는 것이다. 木鬼는 寒藥 사용을 꺼리고, 火鬼는 風藥 사용을 꺼리고, 土鬼는 熱藥 사용을 꺼리고, 金鬼는 丸藥 사용을 꺼린다.

(5) 병점에서 子孫과 官星이 함께 空亡이면 吉兆이다. 혹 함께 쇠약한데 안정하고 또 沖剋도 없고 合 등 다른 변고가 없으면 그 병은 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치료되는 병이다. 만약 이 두 것이 함께 발동하는 경우는 약을 먹음 병도 아니지만 특별한 병증도 없는데, 이는 神을 송배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복약하여야 한다. 기도로서 풀어야 낫는다. 이것이 속세에서 말하는 外修內補인 것이다.

(6) 卦에 두 子孫이 발동하면 약을 쓸 때 간복을 해야 하니, 福德의 권한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혹 양방으로 탕약을 사용하여 간복하면 효력을 볼 것이다.

36) 坎卦는 짜고 찬 약, 艮卦는 달고 따뜻한 약, 乾·兌卦는 맵고 서늘한 약, 坤卦는 달고 습한 약, 巽卦는 시고 찬 약, 巽卦는 시고 온한 약. 김석진, 大山周易占解, 서울, 대우학당, 1997, p. 46.

(7) 官鬼가 발동하여 間爻를 沖剋하거나 或 鬼가 間爻에 있으면서 발동하면 肺연교 胸膈에 불리한 병이 있으니 모름지기 가슴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사용한다. 치제가 발동함을 만나면 이는 氣를 역으로 치료해야 기가 순조로워진다.

5) 調理

(1) 財는 음식이나 자양과 양생을 한다. 그러나 발동하면 鬼爻를 生助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로운 바가 된다. 이를 참고로 약을 쓰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령 木爻에 놓였다면 動風之物로 된 음식을 꺼리고, 火爻에 놓였다면 구운 것·지진 것·더운 음식물 등을 꺼리고, 土爻에 놓였다면 기름진 음식·살찐 음식·미끄러운 음식을 꺼리고, 金爻에 놓였다면 굳은 음식·단단한 음식·짠 음식 등을 꺼리고, 水爻면 반드시 물에서 나는 고기라든가 생선·찬음식·날것을 크게 꺼리는 것 등이다. 본시 財는 안정되어야 하고 망동하여서는 안된다. 또 鬼爻는 生肖物을 꺼린다거나, 또丑은 쇠고기를 꺼린다거나 酉는 닭고기를 꺼리는 것 등이다.

(2) 木에 청룡이 임하여 도우면 편벽된 마음을 여유있게 하고 정서와 회포를 갖는 것이 좋다. 청룡은 희열의 神으로 하는데, 다시 木爻에 임하여 世爻와 生合되면 主象은 病人이 반드시 가사를 포기하고 방관하며 마음을 비우고 회포를 안고 복약하면 반드시 공력이 있을 것이다.

(3) 卦中の 福德과 官星이 안정되고 쇠약한데 만약 부모가 발동하여 世身이나 主傷과 生合하면 모름지기 복약하지 말고 조용한 방에 기거하며 문을 꼭 닫고 수양이나 하는 것이 옳다.

결 론

고대에는 祭政一致의 사회로 祭政을 맡은 사람이 醫까지 겸하였고, 그들은 모두 易을 바탕으로 다스렸으므로 歷대의 醫家들은 醫易은 同源이라 하여 의학에 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六爻占은 揲著法·擲錢法·산대법·時間作卦法 등 일정한 방법에 따라 得卦하여 周易의 64卦와 각 卦의 여섯 爻를 바탕으로

64卦를 오행으로 나누고 각 爻를 六十甲子에 맞추어 五行의 相生·相克의 이치에 따라 吉凶變化를 판단하는 것으로, 人事의 제 반사항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疾病·病體·醫藥에 대한 점으로 診斷·治療·豫候를 판단할 수 있다. 六爻占에서 사용하는 구성요소는 많지만, 疾病·病體·醫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에는 納甲·變爻·六親·世應·六獸·空亡·十二運星·八神 등이 있다. 점을 보는 목적을 用神이라 하는데 六爻占의 상황이 用神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吉凶을 정하고 追吉避凶을 한다.

病證占과 病體占에서는 병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用神이 환자이고 用神을 癒하는 忌神이 病이 된다. 구성요소의 상태로 病의 상태를 살피니 用神을 돕는 것이 많으면 吉하고 忌神을 돕는 것이 많으면 凶하다.

醫藥占에서는 病의 예후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用神이 환자이고 忌神이 病의 상태가 되며 忌神을 극하는 喜神이 약이나 의사가 된다. 구성요소의 상황으로 病證에 맞는 醫藥을 찾으니 用神으로 환자의 吉凶을 살피고, 忌神으로 病의 吉凶을 살피며, 喜神으로 醫藥의 吉凶을 살피고, 用神·忌神·喜神의 세력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中國醫學史, 1997.
2. 광동렬 釋, 문답식 周易과 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3. 楊力 著, 김충렬 外 譯,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법인문화사, 2000.
4. 김용연·노응근, 이것이 귀신도 곡하는 점술이다, 서울, 안암문화사, 2001.
5. 김석진, 大山周易講解(上經), 서울, 대유학당, 1993.
6. 김수길·윤상철, 편해 매화역수, 서울, 대유학당, 1997.
7. 심경호 譯,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8.
8.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서울, 이정표, 2000.
9. 김석진, 大山周易占解, 서울, 대유학당, 1997.